

2023년도 제5차 재경위원회 회의록

1. 일시 : 2023. 10. 27.(금) 14:15 ~ 14:45

2. 장소 : 행정관 4층 소회의실(비대면 회의)

3. 참석 현황 : 재적위원 30명 중 참석 23명, 불참 7명

□ 참석위원(23명)

- 당연직(8명) : 기획부총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연구처장, 기획처장, 시설관리국장, 재정전략실장, 발전기금상임이사
- 임명·위촉직(15명)
 - 학내위원(8명) : 김OO, 김OO, 김OO, 류OO, 박OO, 안OO, 이OO, 최OO 위원
 - 학외위원(7명) : 김OO, 김OO, 김OO, 박OO, 이OO, 이OO, 정OO 위원

□ 불참위원(7명)

- 당연직(1명) : 사무국장
- 임명·위촉직(6명) : 목OO, 서OO, 윤OO, 이OO, 이OO, 최OO 위원

※ 보고 및 배석(5명) : 기획부처장, 예산과장, 예산과 최OO, 회계지원팀장, 회계지원팀 박OO, 재무과장

※ 참관(2명) : 학부 대표 조OO, 대학원 대표 이OO

4. 안건

□ 전차 회의록 보고

- 2023년 제3차, 제4차 재경위원회 회의록

□ 심의 안건

- 2022회계연도 서울대학교 종합재무제표(안)

5. 회의 결과

가. 전차 회의록 보고

□ 2023년 제3차 재경위원회 회의록

- 보고자 : 엄OO 예산과장
- 2023년 제3차 재경위원회(2023. 4. 24.)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

□ 2023년 제4차 재경위원회 회의록

- 보고자 : 엄OO 예산과장
- 2023년 제4차 재경위원회(2023. 5. 24. ~ 5. 25.)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

나. 심의 안건

□ 2022회계연도 서울대학교 종합재무제표(안)

- 보고자 : 이OO 기획부처장
- 안건 요지

[종합재무상태표] 자산 66,271억원, 부채 7,446억원, 자본 58,825억원

- 유형자산은 서울대에서 건설중인자산 802억원, 연구기자재 323억원,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기자재 426억원 등 총 1,956억원 취득하였지만 감가상각비 1,448억원 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09억원 증가

[종합운영계산서] 운영수익 18,641억원, 운영비용 17,939억원, 당기운영차액 702억원

- 정부출연금및보조금은 출연금수입이 256억원 증가하였으나 이 중 기타자본금을 인식하는 등으로 전년대비 58억원 증가

○ 제시된 의견

- 관리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 등 약 100억원이 고정비성으로 증가되었고,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되어 운영수익에 영향을 줄 중요한 요소라 생각됨. 대학 전체에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 절감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노력해갈 것을 제안
 - ↳ 에너지 절약 및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.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관리센터, ESG위원회, 연구과제 등 정책적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용량이 증가한 것보다 공공요금 단가 상승 등에 기인하였으며,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

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준비중임

- 재무상태표와 운영계산서는 전년대비 개선된 부분이 보이나, 회계적인 데이터 외에 부채 비율, 유동 비율, 비용 증가율 등과 같이 경영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개발하여 내년 종합재무제표 심의시 경영이나 운영상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지표도 공유해줄 것을 제안

↳ 제안해주신 주요 지표들을 정리하여 내년 심의시 반영하겠습니다

- 종합운영계산서 운영비용 중 인건비와 연구비 증가요인이 연구수주 증가로 표현되어 있는데, 연구수주 증가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 외에 비용 증가 요인으로 어떤 투자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지 나중에라도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음

↳ 운영비용의 증가요인으로 연구수주 외에 다른 요인들도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, 이에 대한 자료는 다음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

- 종합운영계산서 운영비용 중 관리운영비는 시스템 구축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, 이것이 비용처리 항목인지 무형이나 유형자산으로 자산화할 항목은 없었는지,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질의

↳ ERP 시스템 구축은 무형자산으로, IT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등은 비용으로 계상하였음. 102억원 중 ERP시스템 구축 외 용역비에 해당하는 다른 비용도 섞여있어 일반용역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

- 운영계산서상 운영차익이 734억 증가되었는데,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증가는 617억원이라 약 100억원의 차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, 배당 등으로 유출되는 일반 회사와 같이 다른 요소가 있는지 질의

↳ 발전재단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는데, 이익이 발생하면 기본재산 쪽에 전입하여 보전하도록 되어있어 해당 100억원은 기본재산에 보전하는 부분임

- 내년 R&D 예산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 수입 감소 등 재무제표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하여 전략을 강구할 것을 제안

↳ 내년 간접비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다른 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, 특히 정부출연금 증가율은 평균 2~3% 수준이지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음. 또한 수익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차원에서 재정효율화 및 성과중심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도 준비하고 있음

○ **심의결과** : 원안대로 심의함.